



## ‘꾼’ ‘남한산성’ 등 영화부터 드라마 ‘마녀의 법정’ 까지 “악역이어도 행복해요”

안방극장·극장가 종횡무진 허성태  
“개그 도전 하고파 ... 팔색조 배우 목표”

스크린부터 안방극장까지 요새 ‘틀면 나오는’ 이 남자, 에너지가 참 대단하다.

지난해 영화 ‘밀정’에서 송강호에게 뺨 맞는 장면으로 대중에 눈도장 찍은 후 올해 ‘다작의 왕’으로 등극한 배우 허성태(40)를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다.

“요새 참 행복하다”고 입을 연 그는 “부모님과 아내에게, 그리고 제가 나오는 작품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것 같다”고 속스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허성태는 올해 영화 ‘남한산성’, ‘범죄도시’, ‘부러더’, ‘꾼’과 더불어 드라마 OCN ‘타날’, KBS 2TV ‘마녀의 법정’까지 종횡무진으로 활동했다.

조선소에서 오래 근무하다 7년 전 추억으로 남길 겸 참가한 SBS TV 예능 프로그램 ‘기적의 오디션’ (2011)을 계기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요즘이 그저 신기하다고 했다.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앞으로 또 어떤 작품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고민이 많아요. 우연히 또 올해 출연한 작품들이 다 흥행했지만, 차기작도 흥행해야 한다는 부담은 전혀 없어요. 작품이란 게 모든 합이 맞아떨어져야 잘 되는 거더라고요.”

허성태는 출연한 작품 속 캐릭터들이 대부분 조직폭력배부터 사기꾼, 살인마 등 인상이 강한 역할이라 이미지가 굳을까 봐 걱정되지 않는다는 물음에는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신인이라면 사교패스 같은 역할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하는데, ‘타날’의 정호영도 그랬고 제가 운이 좋게 배역을 잘 만났어요. 이미지 고착

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악역이라도 개연성이 있고 매력이 있다면 앞으로도 하고 싶어요.”

그래도 작품마다 죽는 역할인 것은 좀 아쉽지 않을까. 그는 ‘밀정’의 하일수를 시작으로 ‘범죄도시’의 독사, ‘타날’의 정호영, ‘마녀의 법정’의 백상호 등으로 여러 번 죽었다.

허성태는 “서운한 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캐릭터들이었기에 관객이나 시청자에게서 더 안쓰럽게 봐주시는 장점이 있다”며 “짧게 나오더라도 임팩트가 있어서 오래 기억되는 캐릭터가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로는 ‘부러더’의 스님처럼 영동하면서도 웃긴 캐릭터를 꼽았다.

“‘꾼’에서 만난 (배)성우처럼 얼굴만 봐도 연기하는 것처럼 재밌는 배우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제가 나를 개그 본능이 또 있거든요. 다만 예능 프로그램은 아직 울렁증이 좀 있네요. 개인기도 별로 없고... (웃음)”

7년의 무명생활 동안 그를 버티게 해준 것은 대학교 때 만나 10년 연애했고 지금은 한집 살이 7년째가 된 아내라고 한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조카가 5명이나 돼서 육아는 자신 있어요. 조카들이 모두 딸이어서 그런지 아들을 만나고 싶네요. 아내가 제가 무명 시절을 보내는 동안 말없이 저를 기다려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늘 고맙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그는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한참 남아있다고 했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배우라는 말을 계속 듣고 싶어요. 그걸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제 남은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연합뉴스



남한산성



밀정



KBS 2TV '마녀의 법정'



## ‘택시운전사’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

음악상·최다관객상 등 4관왕

송강호, 남우주연상 수상

광주민중화합운동을 그린 영화 ‘택시운전사’가 올해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택시운전사’는 25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38회 청룡영화상에서 ‘남한산성’, ‘더 킹’, ‘박열’,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을 제치고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제작사 더 랩의 박은경 대표는 “망월동의 묘비에서 ‘동지들과 함께 하지 못해 평생 괴로워한 아버지, 동지들 곁에서 편히 쉬소서’라는 글을 본 적 있다”며 “이 상은 아픈 현대사에 대한 위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우주연상 역시 ‘택시운전사’의 송강호가 수상했다.

송강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미안한 마음을 영화에 담고 싶었다”며 “천만 관객도 중요하지만 그 미안한 마음을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를 통해 되새겨줬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택시운전사’는 음악상과 한국영화 최다 관객상 등 모두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여우주연상은 ‘아이 캔 스피크’의 나문희가 받았다. ‘범죄도시’의 진선규가 남우조연상, ‘더 킹’의 김소진이 여우조연상을 각각 수상했다.

감독상은 ‘아이 캔 스피크’의 김현석 감독, 신인감독상은 ‘연애담’의 이현주 감독에게 각각 돌아갔다. ‘남한산성’의 황동혁 감독은 각본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 영화 ‘꾼’ 개봉 나흘만에 100만 돌파

현빈·유지태 호흡 눈길

현빈과 유지태가 주연한 영화 ‘꾼’이 개봉 나흘 만에 관객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꾼’은 전날 하루 47만 4243명의 관객을 동원해 개봉일인 22일부터 나흘간 누적 관객수 121만 4588명을 기록했다.

개봉 다섯 날에 관객수 100만 명을 넘어선 ‘공조’보다 하루 빠른 속도다. 올해 1월 개봉한 ‘공조’는 누적 관객수 781만 명으로 현빈의 역대 최고 흥행작이다.

‘꾼’은 검사와 사기꾼이 손잡고 회대의



금용 사기꾼을 잡으려 한다는 내용의 범죄 오락영화다. 현빈이 사기꾼만 골라 사기꾼을 치는 지성, 유지태가 지성과 손잡고 사기꾼 장두질을 잡으려 하는 검사 박희수 역을 맡았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결여자 세계속으로(재)	5:50 세상기록 48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여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영화가 좋다 (재)	50 20세기 소년소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국제상 수상작 시리즈 다큐 공감-엄마와 클라리넷 55 UHD 한식	50 마녀의 법정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문화사색 50 헬로기아! 동물탐험대 2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특 Talk
1	00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빛고를 행복이카데미	50 VJ 특공대	3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 (재)	5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05 사이닝스타 35 텔레몬스터 40 꾸러기 식사교실	00 뉴스브리핑
3	30 공감다큐. 사람(재) 50 팔도발상 스페셜(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10 통일전망대	
4	00 4시 뉴스집중		00 양코르 MBC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재) 35 승터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드래곤에그 30 살림하는남자들 스페셜	00 MBC 이브닝 뉴스 30 돌아온 복단지 (재)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발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서남해안 관광프로젝트 -신해양시대 바다가 미래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내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퀘스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스페셜 50 20세기 소년소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마녀의 법정	00 투깝스	00 의문의 일승
11	10 월요기획	10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10 테마여행 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이웃집 할스 (재) 50 생활의 발견	50 사랑의 가족 (재)	10 천년의 전라도 25 겁 없는 녀석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15 꼬마기사 마이크	20:40 다큐 오늘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아시아동물기행 - 캄보디아 코끼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치찌개와 단호박 영양밥)	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6:00 엄마 깨우리 16:15 두다다쿵	(바다의 말벌, 상해해파리)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0:50 세계테마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똥똥똥 유치원 1~2(재)	<꿈꾸던 겨울 핀란드 - 라플란드 불의 여우 찾아서>
07:00 허준선이 과학쇼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7:15 로보카 폴리	21:30 한국기행
07:30 로보카 폴리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1:50 EBS 다큐프라임
07:45 총동! 슈퍼원스	12:45 과학 다큐 비온드 (재)	17:45 호기심 소녀 도토.	<꿈, 떠나다>
08:00 똥똥똥 유치원 1~2	13:00 엄마를 찾지마(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22:45 엄마를 찾지마
08:30 플라워링 하트	14:30 레이디 버그	19:00 로보 발명왕 러스티	23:35 까칠녀너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00 우주탐험가 젯	19:30 EBS 뉴스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9:00 몬카트		19:55 다문화 교부 열전	<걸리버 여행기>
09:15 소피 루비			24:30 세계의 드라마
			(더블 가족 이야기 3부)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7일(음 10월 10일 戊午)

子	48년생 별개의 개념이니 함께 다룰 일이 아니다. 60년생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다. 72년생 백 마디의 말 보다 단 한 번의 실행이 설득력을 얻는다. 84년생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될 전망이니 감안하여 대응하자. 행운의 숫자 : 38, 72	午	42년생 투명하게 임하는 것이 생산성을 제고한다. 54년생 기회가 주어진다. 66년생 사소한 것은 차치하고 핵심 가치에 치중하는 것이 실속이다. 78년생 적절한 방안을 찾게 되리라. 90년생 초심대로라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7, 68
丑	49년생 지금 시비를 명백하게 가려두지 않는다면 후환을 초래할 수 있다. 61년생 이치에 어긋남이 없어야 오래 갈 것이다. 73년생 기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막으려 말라. 85년생 지혜보다 직감이 더 맞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6, 47	未	43년생 치밀하지 않다면 자질을 빛게 된다. 55년생 실시간으로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67년생 명발한 검토 후의 판단이 손실을 줄이게 할 것이다. 79년생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91년생 곧 안정될 것이니 염려 말라. 행운의 숫자 : 58, 04
寅	50년생 우연한 행운이 상당한 기쁨을 안겨다 주는 형세이다. 62년생 인식하는 각도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날 것이다. 74년생 추구하고자 하는 본래도로 진입하고 있는 판국이다. 86년생 습관을 잘 들여야 당황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0, 45	申	44년생 방도는 좋으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 56년생 중간에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된다. 68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한 시기가 할 만하다. 80년생 대롱 구명으로 하늘을 보려는 이치이다. 행운의 숫자 : 59, 46
卯	51년생 매사에 있어서 요령이 있어야만 능률적이다. 63년생 부드러운 어감의 표시가 훨씬 더 마음이 간다고 말할 수 있다. 75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 87년생 용기 있는 이만이 행운을 잡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69, 85	酉	45년생 일반적 보편성을 결여한 주관은 오류를 낳기 쉬운 국량이다. 57년생 모두가 하나하나 따르므로써 개별적인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69년생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중요함을 알자. 81년생 간접 경험의 효과가 매우 크다. 행운의 숫자 : 12, 97
辰	52년생 일관되게 진행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다. 64년생 적극적인 참여가 보람을 가져다준다. 76년생 다양한 측면에서 큰 폭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88년생 책임과 권리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60, 10	戌	46년생 신중해야만 정확히 대처할 수 있다. 58년생 조금만 더 시야의 폭을 넓힌다면 전혀 다른 면이 보일 것이다. 70년생 과도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82년생 탄력적이라면 활발한 진척을 보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31
巳	53년생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다. 65년생 마음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 77년생 미연에 조차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89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해안이 절실히 필요한 국량이다. 행운의 숫자 : 25, 11	亥	47년생 승물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양상으로 변저갈 사세이다. 59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날이다. 71년생 정확하게 가리지 않는다면 손해가 커지는 정황이다. 83년생 공공공영의 기반이 성립되는 도량이다. 행운의 숫자 : 13, 1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연” ☎010-9790-8237